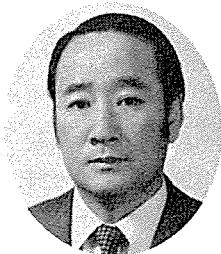


세계 가톨릭병원 및 진료소협회 창립총회에 다녀와서



박 용 휘

〈본협회 사무총장〉

의술과 진료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보살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現代를 살고 있는 우리안에서 재현하고 증거하여야 하는 가톨릭 醫療機關들의 국제적 기구가 創立되는 모임에 參加하여 새삼스럽게 이러한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사랑에 찬 醫術」을 펴나가야 하는 가톨릭의료기관들의 벽차고 험준한 앞길에 대하여 하염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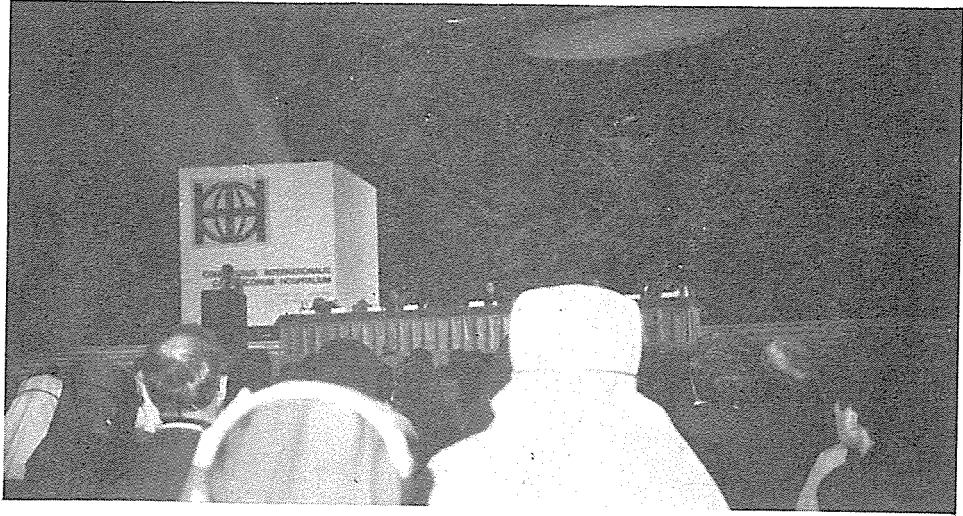
창립총회를 겸한 제 1 차 세계 가톨릭 病院協會 모임은 지난해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의 사흘동안 바티칸 교황청 관내 베드로聖殿 앞들의 大石柱회랑 우측 후편에 세워져있는 바오로 6세 기념 알현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김대군神父님(가톨릭病協 會長), 서공석神父님(副會長), 맹광호교수님(가톨릭의대) 그리고 본인이 참가하였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人類복지를 향상시키고 크리스찬 文化를 창달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 40 개국에서 雲集한 1천여명의 대소가톨릭의료기관 代表者들은 이 모임에서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항상 그들을 필요로 하는 患者의 「바로 곁에」 있어야 한다는 至上目標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톨릭 의료기관의 理念을 明文의이고 실천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中心課題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위해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협력기구 즉 世界가톨릭 病院協會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창립총회는 教皇廳 주선으로 기획되었고 美國 뉴욕대 교수 몬시놀 Cassidy와 로마의 예수 소아병원에 근무하는 Sacchetti 총무의 준비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教皇께서는 致辭를 통해 「가톨릭 의료활동은 모름지기 전인간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은 새로운 크리스찬 文化창조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통받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가톨릭의료기관의 사명을 다하기위해 국제기구를 발족시킨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첫날에는 몬시놀 Caffarra의 「健康의 神學」(Theology of Health)이라는 基調연설이 있었고 정오에는 베드로聖殿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6개 大陸 代表를 선출하였는데 아세아지역 代表로는 印度의 Vattamton신부와 本人이 선출되었다. 이어서 이들 代表들에 의한 「가톨릭病院이란 무엇인가」(What is a Catholic Hospital?) 라는 가톨릭病院의 本質에 대한 論文發表와 폭 넓은 토의가 있었다.

이틀째인 30일 오전에는 각 大陸별로 그룹을 지어 각국의 가톨릭病院 실태 및 운영상의 問題點등에 대한 연제발표가 있었고 「健康管理에 있어서의 教會의 必要性」에 대한 討議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음을 상기시키고 가톨릭의료기관은 그러한 精神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 31일 오전에는 가톨릭病院들의 역할과



총회 첫날 대일현관에서 “가톨릭병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륙대표들의 논문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기능에 대해서 醫師, 看護員, 院牧, 藥師 및 病院 管理者代表에 의한 전문직 분야별 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代表들이 지역별 그룹토의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 중에는 한국 가톨릭병원협회가 1967년에 創立되어 현재 60개 회원 病院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내 총병상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臨床司牧教育과 호스피스 및 자원봉사 사업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 있어 이에대해 많은 나라들이 아세아의 모델國家로 評價해 주었던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이번 총회는 「가톨릭病院은 크리스찬적 사랑을 구현하는데 있어 창조적 경험을 얻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이 모임의 목적이 교육적이며 정보교환의 모체가 되고 나아가 구령사업에 앞장서는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가톨릭病院 및 診療所협회가 세계기구로 확정됨에 따라 1986年 5월경 로마에서 各地域 代表會議를 소집하고 국제기구로서의 會則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決議하고 그 막을 내렸다.